202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 어

수험 번호 : ( )　　**성 명 : ( )**

제1차 시험	2교시 전공A	12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은 1어절로, ㉡은 2어절로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김 교사 : 학생이 능동적으로 읽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읽기를 할 때 학생의 사고 과정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교사 : 글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오독을 분석하여 독자의 읽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독을 한 경우에 독자는 자신의 읽기 과정에 대한 (　㉠　)을/를 하여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다시 글을 읽는 조정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가설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독자가 자신이 잘못 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쳐 읽는 전략이 (　㉡　)입니다. 독자 스스로 자신의 읽기에 오독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살피는 (　㉠　)와/과 다시 읽는 것과 같은 조정을 할 때에 상위 인지 전략이 활용됩니다. 독자가 능동적으로 글을 읽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지요.

2.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가)에서 찾아 ㉠은 1어절로, ㉡은 2어절로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 (상략) …

(中葉)　동경(東京) 볼근 ᄃᆞ래 새도록 노니다가
(附葉)　드러 내 자리를 보니 가ᄅᆞ리 네히로섀라
(小葉)　아으 둘흔 내해어니와 둘흔 뉘해어니오
(大葉)　이런 저긔 처용아비옷 보시면
　　열병대신(熱病大神)이아 회(膾)ㅅ가시로다
　　천금(千金)을 주리여 처용아바
　　칠보(七寶)를 주리여 처용아바
(附葉)　천금 칠보도 마오
　　열병신을 날 자바 주쇼셔
(中葉)　산이여 ᄆᆡ히여 천리(千里) 외(外)예
(附葉)　처용아비를 어여녀거져
(小葉)　아으 열병대신의 발원이샷다

- 고려 「처용가」 -

(나)

「처용가」는 고전시가 작품을 통시적으로 비교·고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신라 「처용가」와 고려 「처용가」에서 주인공 처용의 모습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신라 「처용가」에서는 역신이 아내를 침범한 상황에 대해 처용이 체념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고려 「처용가」에서는 역신에 대한 분노를 바탕으로 (　㉠　)(이)라는 표현처럼 처용이 역신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위력을 드러내고 있다. 역신 또한 그러한 처용의 위력에 완전히 굴복하여 (　㉡　)(이)라고 말함으로써, 처용이 지닌 권능을 부각하고 있다.

3.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주어가 화자의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를 반영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하나의 문장이 서술하는 사건에서 화자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끄는 대상이 주어로 선택된다. 이 견해를 적용하면 한국어의 다양한 논항 교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

(1) 철수가 망치로 그릇을 깼다.
(2) 망치가 그릇을 깼다.
(3) 그릇이 깨졌다.

(1)에서는 '망치로'가 부사어인데, '망치'가 화자의 주의를 가장 많이 받으면 (2)처럼 '망치가'가 (㉠)인 문장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2)에서는 '그릇을'이 목적어였지만, '그릇'이 화자의 주의를 가장 많이 받으면 (3)처럼 '그릇이'가 (㉠)인 문장이 만들어진다. (1)~(3)에 논항으로 참여한 '그릇'의 경우, 문장에 따라 문장 성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은/는 모두 동일하다.

4.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자료 1>

눈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이라는 중심 의미에서 '태풍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
낚이다	'물고기가 낚시로 잡히다.'라는 중심 의미에서 '꾀에 속아 이익을 뺏기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그는 경품에 낚였다.

<자료 2>

두뇌	'기억과 사고를 담당하는 신체 기관'이라는 중심 의미에서 '두뇌를 잘 활용하는 인재'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그는 우리 회사의 두뇌이다.
보다	'눈으로 어떤 대상을 지각하다.'라는 중심 의미에서 '(아이를) 돌보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엄마가 아이를 보고 있다.

<자료 1>에서 설명하는 의미 확장에는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과의 유사성을 통해 이해하는 인지적 기제인 (㉠)이/가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 2>에서 설명하는 의미 확장에는 인접성을 토대로 한 인지적 기제인 (㉡)이/가 개입하고 있다.

5. 다음을 읽고, 독자를 고려한 쓰기 교수·학습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쓰기 수업을 준비하며 참고한 자료

작문 이론에 따라 독자의 위상과 개념이 상이하게 논의되었다. 독자에 대해, 텍스트의 형식을 중시하는 작문 이론에서는 '(㉠)'(으)로, 글쓰기를 개인의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보는 작문 이론에서는 '능동적인 해석자'로, 글쓰기를 사회적 행위로 보는 작문 이론에서는 '(㉡)'(으)로, 글쓰기를 다성(多聲)적인 활동으로 보는 작문 이론에서는 '대화 참여자'로 설명한다.

쓰기 교육에서는 작문 이론에서 제시하는 '특정 독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정 독자는 필자의 글쓰기에 반응을 제공하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구성원으로, 교사, 부모, 친구처럼 필자가 잘 알고 있으며, 현실에서 확인 가능하고 접촉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독자를 가리킨다. 독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글쓰기 상황에서, 필자는 특정 독자를 고려함으로써 글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 수업 활동지

※ 사회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글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써 보자.

활동 1 최근 화제가 되는 사회적 쟁점을 하나 골라 분석해 보자.

활동 2 '활동 1'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한 쓰기 계획을 세워 보자.

활동 2-1 자신이 상정한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입장과 배경지식 정도가 어떠한지 고려하여 쓰기 목적을 세워 보자.

활동 5 완성한 글을 학교 게시판에 올려 공유해 보자.

(다) 수업 장면

학생 A는 **활동 2-1**의 예상 독자를 상정하고 그 특성을 구체화하는 활동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막막해했다. 그러다가 자신이 선택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평소 관심을 보였던 친한 친구를 한 명 떠올리고, 그 친구의 특성을 적고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 (중략) … 학생 A는 **활동 5**에서 ㉢ 자신이 작성한 글을 학교 게시판에 올렸다. 이후 학생 A는 자신의 글을 공유함으로써 **활동 2-1**을 수행하며 느꼈던 막막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작성 방법>

○ ㉠, ㉡에 들어갈 독자의 개념을 각각 순서대로 서술할 것.
○ (가)와 관련지어, 학생 A가 **활동 2-1**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를 서술하고 ㉢이 지니는 쓰기 교육적 의의를 서술할 것.

6. 다음을 읽고, 면담의 교수·학습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수업 연구회 자료 – 학생 A의 사례를 중심으로

■ 면담 활동 전사 일부

학 생 A : 한국에서는 그 수가 적은 법의학자의 경험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법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일을 하고 싶지만, 이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피면담자 : 법의학에 관심이 있다니 반갑네요. 저는 처음부터 이 분야에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이 해부학을 전공하셔서 이 길을 알게 되었어요.

학 생 A : ㉠ 그러면 부모님께서 이 직업을 권하셨군요? 그렇죠?

피면담자 : 아니, 꼭 그렇지만은…….

학 생 A : 부검의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떠셨나요? 어떻게 부검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면담자 : 훈련 기간 동안 힘들었습니다. ㉡ 개인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서 자세히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학 생 A : 아, 예……. 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법의학을 전공하면 어디에서 일할 수 있나요?

피면담자 : 상당수가 ○○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일합니다.

■ 면담 활동에 사용된 동의서

- 이 면담은 진로 탐색 활동의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면담 결과는 국어 발표 수업에서 활용됩니다. ☑ 동의 ☐ 비동의
- ㉢ 사전 동의서에 첨부된 질문 개요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이 면담은 영상 촬영이 되며, 본인의 실명과 함께 공개됨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 예 ☐ 아니요
- 면담 내용이 정리된 후에 확인이 필요하십니까? ☑ 예 ☐ 아니요

20○○년 ○○월 ○○일

피면담자 성명 최진수 (서명) *최진수*

(나) 수업 연구회 회의록

김 교사 : 지난주 수업에서 진로 탐색 면담 활동을 진행하였어요. 면담 진행 후 단계의 활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수업 연구회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박 교사 : 가장 먼저, 면담 또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면담 과정에서의 소통 방식에 대하여 학생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과 같은 질문은 면담에서의 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최 교사 : 저도 면담에서는 어떻게 묻는지가 중요하므로 학생들이 이 점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을 보면, 사체 검안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기까지 거쳤던 훈련 과정이 해당 직업을 탐색 중인 면담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데, 피면담자가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이라며 제대로 답하지 않았어요. 질문이 피면담자에게 민감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럴 경우 면담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략적으로 질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면담 중간에라도 융통성 있게 피면담자로부터 ⓑ 재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아요. 사전에 동의서를 받았지만, ⓒ 실제 면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통 상황의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요.

김 교사 : 말씀하신 추가 질문은 특히 면담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정보를 제삼자나 인터넷 등을 통해 얻기가 불가능할 때 학생들이 면담자로서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는 ⓓ 정보 획득의 경로로서 면담이 가지는 장점과도 연관됩니다.

이 교사 : 이번에는 면담 자료를 정리하고 공개하는 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나눠 보아요. 김 선생님, 면담 활동에 사용된 동의서의 마지막 항목을 해당 학생이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해 보셨나요?

김 교사 : 제 수업에서는 각자의 면담 결과를 발표 형식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피면담자는 자신이 털어놓은 경험이나 생각이 어떻게 사용될지 걱정할 수 있으므로, ⓔ '학생 A'가 면담 동의서에 입각하여 이행해야 할 행위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방법>

○ ⓐ의 이유를 서술하고, ⓑ의 이유를 ㉢과 ⓒ를 관련지어 서술할 것.

○ ⓓ와 ⓔ를 각각 서술할 것.

7. 다음을 읽고, 읽기·쓰기 교육의 대안적 평가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읽기·쓰기 교육에서 대안적 평가

읽기 교육에서 전통적인 평가 방법으로 활용된 선택형 지필 평가는 평가의 중점이 독해 결과와 같은 인지적 영역에 치중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독서 활동의 온전한 모습을 반영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쓰기 교육에서 쓰기의 최종 산출물인 글만을 평가하는 것은 실질적인 쓰기 능력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일련의 쓰기 단계에 따라 산출된 결과물을 분석하는 방법이 활용되지만, 이는 여전히 글을 통해 쓰기 능력을 평가한다는 한계가 있다. 쓰기 과정 평가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었을 때 쓰기 과정과 결과가 연결되고 학습자가 글쓰기 전반을 되돌아보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나) 읽기에서의 대안적 평가 사례

1) 평가 계획

○ 평가 목적 : 관심 분야의 책을 읽으며 독서를 생활화하는지 평가한다.

○ 평가 방법 : 3월부터 6월까지 월별 한 권 이상의 책을 읽게 한다. 독서 목록, 감상문 등의 독서 활동 결과물과 독서 태도 진단 검사를 2회 실시한 결과물을 모아서 파일로 정리하게 한다. 독서 활동의 결과는 교사의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독서 태도의 평가는 교사의 관찰 평가로 진행한다.

2) 평가 결과

○ 학생 A의 독서 태도 진단 검사 결과표

측정 문항	3월	6월
나는 책을 읽는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	3
나는 책을 읽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나는 책을 읽으면 재미있다.	3	3
나는 읽기 시작한 책을 끝까지 읽는다.	2	3

* 판정별 배점 : 우수=3, 보통=2, 미흡=1

○ 학생 A에 대한 교사 평가 결과표

영역 / 기간	참여도	독서 활동 결과물		독서 태도	
	배점	판정	배점	판정	배점
종합	11	보통	10	보통	7
총평	○ 독서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였고, 독서 활동 결과물의 완성도가 보통 수준입니다. 집중하며 즐겁게 읽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독서 태도의 향상을 위해 (㉠)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다) 자기 회상법을 활용한 쓰기 평가 사례

1) 평가 계획

○ 평가 목적 : 쓰기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글을 쓰고 있는지 평가한다.

○ 평가 방법 : 학생의 쓰기 과정에 대한 자료를 자기 회상법을 활용하여 수집한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보면서 학생 스스로 쓰기 과정을 분석하게 하고 교사가 학생과 함께 평가적 대화를 나누며 쓰기 수행 특성을 평가한다.

2) 평가 자료

○ 자기 회상법을 활용해 수집한 학생 B의 자료

> 이제 글을 다 썼으니, 글을 쓰는 동안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순차적으로 떠올려 봐야겠어.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은 뻔한 글은 쓰지 말아야겠다는 것이었어. '학교'는 무언가를 학습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다른 상황에 대한 비유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더 떠오르지 않는데…. 일단 넘어가자. 그리고…. … (하략) …

<작성 방법>

○ (가)에 제시된 전통적 평가의 단점이 (나)의 '평가 방법'에서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서술하고, ㉠에 들어갈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 A의 독서 태도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할 것.

○ (가)와 관련지어, 쓰기 과정 평가에서 자기 회상법의 특징을 서술하고 ㉡이 학생에게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지니는지 서술할 것.

8. 다음을 읽고, 단어의 변화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중세 국어에는 (1)과 같이 모음 교체 관계에 있는 단어 쌍이 제법 많았다. 이들 단어 쌍은 (2)의 '곱다-굽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의미에서 큰 차이 없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1) 밧기다-벗기다, 곱다-굽다, 쟉다-젹다, 파라ᄒᆞ다-퍼러ᄒᆞ다

(2) ㄱ. 등(藤)ㅅ 너추른 고바 <두시언해(초간) 15:8>
ㄴ. 무우수(無憂樹)ㅅ 가지 굽거늘 <월인천강지곡 19>

모음 교체 관계에 있는 단어 쌍은 현대 국어로 오면서 두 단어 중 하나가 사라지기도 하고, 서로 의미의 차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문법적인 특성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1)의 '밧기다-벗기다'는 '밧기다'가 사어화(死語化)됨에 따라 '벗기다'만 남았고, '곱다-굽다' 중 '곱다'는 현대 국어에서 '손가락이 곱았다.'처럼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맥락에서 주로 사용된다. '쟉다-젹다'는 현대 국어에서 쓰임이 분화되어, '작다(<쟉다)'는 주로 '부피, 넓이 등이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적다(<젹다)'는 주로 '분량, 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파라ᄒᆞ다-퍼러ᄒᆞ다'의 현대 국어 대응형 ㉠'파랗다-퍼렇다'는 두 단어의 어감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음 (3)의 단어 쌍도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오면서 변화를 보인다.

(3)

유형	중세 국어	현대 국어
ㄱ.	마리-머리	마리-머리
ㄴ.	붉다-븕다	밝다-붉다
ㄷ.	놁다-늙다	낡다-늙다

(3ㄱ)의 '마리-머리'는 현대 국어로 오면서 ㉡품사의 하위 분류의 차이가 확연해졌다. (3ㄴ)의 '밝다'는 의미적으로 색채어에서 벗어남은 물론 '벽지가 밝다.', '날이 밝는다.'에서 알 수 있듯이 ㉢품사적 특성에서 '붉다'와 달라졌다. (3ㄷ)의 '낡다-늙다'는 현대 국어에서 ㉣주어와 관련된 선택 제약에서 차이가 생겼다.

<작성 방법>

○ ㉠이 의미하는 바를 서술할 것.

○ (3)의 변화에 대해 ㉡, ㉢, ㉣이 의미하는 바를 각각 서술할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 다음을 읽고, 선어말 어미 '-더-'와 '-더-'가 포함된 결합형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종결형에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 '-더-'는 화자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지각을 통해 새로 알게 된 것을 서술할 때 사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1) ㄱ. *내가 운동을 했더라.
ㄴ. 민수가 운동을 했더라.
ㄷ. 내가 다른 사람 가방을 가지고 왔더라.

이런 견해에 따르면, (1ㄱ)과 (1ㄴ)을 비교할 때 (1ㄱ)에서 (㉠) 주어의 사용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화자가 이미 직접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건을 서술하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의 서술에 적합한 '-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달리 (1ㄷ)은 (㉠) 주어의 사용이 어색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화자가 전에는 (㉡) 자신의 행동을 '새로 알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의 (2), (3)은 '-더-'가 포함된 연결 어미 '-더니'와 '-더니' 앞에 '-았-'이 결합한 '-았더니'가 사용된 예문들이다. (2)와 (3)의 특정 맥락에서 사용된 '-더니'와 '-았더니'는 ⓐ 문장의 주어와 관련된 제약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2) ㄱ. *내가 집에 가더니, 대청소를 했다.
ㄴ. 민수가 집에 가더니, 대청소를 했다.

(3) ㄱ. 내가 운동을 했더니, 건강이 좋아졌다.
ㄴ. 민수가 운동을 했더니, 건강이 좋아졌다.

<작성 방법>

○ ㉠, ㉡에 들어갈 말을 ㉠은 1어절로, ㉡은 2어절로 순서대로 쓸 것.
○ (2)와 (3)에서 각각 나타나는 ⓐ의 양상을 (1)에 나타나는 종결형에서의 '-더-'와 대비하여 서술할 것.

10.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그사기컵은내해골과흡사하다. ⓐ 내가그컵을손으로꼭쥐었을때내팔에서는난데없는팔하나가접목처럼돋히더니그팔에달린손은그사기컵을번쩍들어마룻바닥에메어부딪는다. 내팔은그사기컵을사수하고있으나산산이깨어진것은그럼그사기컵과흡사한내해골이다. 가지났던팔은배암과같이내팔로기어들기전에내팔이혹움직였던들홍수를막은백지는찢어졌으리라. 그러나내팔은여전히그사기컵을사수한다.

- 이상, 「오감도 시제11호」 -

(나)

백일치성(百日致誠) 끝에 산삼은 이내 나서지 않었다 자작나무 화툿불에 확근 비추우자 도라지 더덕 취싹 틈에서 산삼순은 몸짓을 흔들었다 심캐기늙은이는 엽초(葉草) 순쓰래기 피여 물은 채 돌을 벼고 그날밤에사 산삼이 담속 불거진 가슴팍이에 앙징스럽게 후취(后娶)감어리*처럼 당홍(唐紅) 치마를 두르고 안기는 꿈을 꾸고 났다 모탯불 이운듯 다시 살어난다 경관(警官)의 한쪽 찌그린 눈과 빠안한 먼 불 사이에 총겨냥이 조옥 섰다 ⓑ 별도 없이 검은 밤에 화약불이 당홍 물감처럼 고왔다 다람쥐가 도로로 말려 달어났다.

- 정지용, 「도굴」 -

* 후취감어리 : 후취감이 될 만한 사람 또는 후비로 시집갈 만한 사람.

<보 기>

시에서 이미지는 언어로 형상화된 감각적 대상과 그 특질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는 부각된 세부 감각에 따라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미각적 이미지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부각됨은 어휘 차원을 넘어 시행과 시 전체의 맥락을 바탕으로 하여 발생한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 때로는 독자의 일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감각될 수 없는 것이 화자에게는 뚜렷이 감각되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하고, 독자의 일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마땅히 감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화자에게는 감각되지 않는 것처럼 생략되기도 하면서 심미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특정한 감각적 이미지가 반복되거나 변주되면서 일정한 의미 구조 속에 배치되는 경우 그것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기능을 넘어 상황의 특성이나 의미를 상징적으로 부각하는 기능을 갖게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지용은 시 「도굴」에서 ㉡ 특정한 시각적 이미지를 반복·변주하였는데, 이를 ㉢ 꿈과 현실의 대조라는 의미 구조 안팎에 배치함으로써 ㉣ '심캐기늙은이'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부각했다.

<작성 방법>

○ ㉠을 세부 감각 층위에 적용하여 ⓐ와 ⓑ의 표현상의 특징을 각각 서술할 것.
○ ㉡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쓰고, ㉢을 적용하여 ㉣에 대해 서술할 것.

11.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A]

현은 평양이 십여 년 만이다. 소설에서 평양 장면을 쓰게 될 때마다, 이번에는 좀 새로 가 보고 써야, 스케치를 해 와야, 하고 벼르기만 했지, 한 번도 그래서 와 보지는 못하였다. 소설을 위해서뿐 아니라 친구들도 가끔 놀러 오라는 편지가 있었다. 학창 때 사귄 벗들로, 이곳 부회 의원이요 실업가인 김(金)도 있고, 어느 고등보통학교에서 조선어와 한문을 가르치는 박(朴)도 있건만, 그들의 편지에 한 번도 용기를 내어 본 적은 없었다. 이번에 받은 박의 편지는 놀러 오라는 말이 있던 편지보다 오히려 현의 마음을 끌었다—내 시간이 반이 없어진 것은 자네도 짐작할 걸세. 편안하긴 허이. 그러나 전임으론 나가 주고 시간으로나 다녀 주기를 바라는 눈칠세. 나머지 시간이래야 그리 오래 지탱돼 나갈 학과 같지는 않네. 그것마저 없어지는 날 나도 그때 아주 손을 씻어 버리려 아직은 지싯지싯* 붙어 있네—하는 사연을 읽고는 갑자기 박을 가 만나 주고 싶었다. 만나야만 할 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이라도 한번 잡아 주고 싶어 전보만 한 장 치고 훌쩍 떠나 내려온 것이다.

정거장에 나온 박은 수염도 깎은 지 오래어 터부룩한데다 버릇처럼 자주 찡그려지는 비웃는 웃음은 전에 못 보던 표정이었다. 그 다니는 학교에서만 지싯지싯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에서 긴치 않게 여기는, 지싯지싯 붙어 있는 존재 같았다. 현은 박의 그런 지싯지싯함에서 선뜻 자기를 느끼고 또 자기의 작품들을 느끼고 그만 더 울고 싶게 괴로워졌다.

한참이나 붙들고 섰던 손목을 놓고, 그들은 우선 대합실로 들어왔다. 할 말은 많은 듯하면서도 지껄여 보고 싶은 말은 골라낼 수가 없었다. 이내 다시 일어나 현은,

"나 좀 혼자 걸어 보구 싶네."

하였다. 그래서 박은 저녁에 김을 만나 가지고 대동강 가에 있는 동일관(東一館)이란 요정으로 나오기로 하고 현만이 모란봉으로 온 것이다.

[B]

오면서 자동차에서 시가도 가끔 내다보았다.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새 빌딩들이 꽤 많이 늘어섰다. 그중에 한 가지 인상이 깊은 것은 어느 큰 거리 한 뿌다귀에 벽돌 공장도 아닐 테요 감옥도 아닐 터인데 시뻘건 벽돌만으로, 무슨 큰 분묘(墳墓)와 같이 된 건축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현은 운전사에게 물어 보니, 경찰서라고 했다.

또 한 가지 이상하다 생각한 것은, 그림자도 찾을 수 없는 여자들의 머릿수건이다. 운전사에게 물으니 그는 없어진 이유는 말하지 않고,

"거, 잘 없어졌죠. 인전 평양두 서울과 별루 지지 않습니다."

하는 매우 자긍하는 말투였다.

현은 평양 여자들의 머릿수건이 보기 좋았었다. 단순하면서도 흰 호접과 같이 살아 보였고, 장미처럼 자연스런 무게로 한 송이 얹힌 댕기는, 그들의 악센트 명랑한 사투리와 함께 '피앙내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런 아름다움을 그 고장에 와서도 구경하지 못하는 것은, 평양은 또 한 가지 의미에서 폐허라는 서글픔을 주는 것이었다.

현은 을밀대(乙密臺)로 올라갈까 하다 비행장을 경계함인 듯, 총에 창을 꽂아 든 병정이 섰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냥 강가로 내려오고 말았다. 마침 놀잇배 하나가 빈 채로 내려오는 것을 불렀다. 주암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자니까 거기는 비행장이 가까워 못 올라가게 한다고 한다. 그럼 노를 젓지는 말고 흐르는 대로 동일관까지 가기로 하고 배를 탔다.

… (중략) …

"이 사람아? 김군 말쯤 고지식하게 탄할 게 뭔가?"

"후……."

"그까짓 무슨 소용이야……."

"내가 취했나 보이…… 내가…… 김군이 미워 그리나?…… 자넨 들어가 보게……."

현은 한참 난간에 의지해 섰다가 슬리퍼를 신은 채 강가로 내려왔다. 강에는 배 하나 지나가지 않는다. 바람은 없으나 등골이 오싹해진다. 강가에 흩어진 나뭇잎들은 서릿발이 끼쳐 은종이처럼 번뜩인다. 번뜩이는 것을 찾아 하나씩 밟아 본다.

"이상견빙지(履霜堅冰至)……."

「주역(周易)」에 있는 말이 생각났다. ㉠서리를 밟거든 그 뒤에 얼음이 올 것을 각오하란 말이다. 현은 술이 확 깬다. 저고리 섶을 여미나 찬 기운은 품속에 사무친다. 담배를 피우려 하나 성냥이 없다.

"이상견빙지…… 이상견빙지……."

밤 강물은 시체와 같이 차고 고요하다.

– 이태준, 「패강랭(浿江冷)」 –

* 지싯지싯 : 남이 싫어하는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짓궂게 요구하는 모양.

<보 기>

이태준의 옛것에 대한 사랑은 「패강랭」에서 대동강의 옛 이름인 패강을 제목에 포함하거나 주역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옛것은 개인의 취향을 표현하는 수단을 넘어 빠르게 진행되는 근대화나 심화되는 일제 파시즘 앞에서 ⓐ사라져 간 것들의 운명을 형상화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작가의 심경과 시대 인식 역시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작성 방법>

○ <보기>의 ⓐ에 해당하는 대상을 [B]에서 찾아 쓰고, 이것과 자신을 '지싯지싯 붙어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박'의 공통점을 [A]에 사용된 표현을 활용하여 서술할 것.

○ ㉠의 '서리'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B]에서 찾아 쓰고, '얼음'을 통해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예감을 '현'이나 '박'이 하는 일과 관련지어 서술할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2. 다음을 읽고, (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나), (다)를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서울에 오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옛날이야기를 잘하기로 유명하여 재상가를 두루 돌아다녔다. 오이나물을 즐기기에 사람들이 그를 오물음(吳物音)이라 불렀다. '물음'이란 익힌 나물을 이름이요, '오(吳)'와 '외[瓜]'가 음이 비슷하기 때문이었다.

[A]

그 무렵 한 연로한 종친이 있었는데 아들이 넷이었다.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었지만, 천성이 인색해 남에게 주는 것이 없었고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눠 주지 않았다. 친구들이 재산을 나눠 주라고 권하면, "나에게도 다 생각이 있다네."라고 답하면서도 세월만 보내고 차마 재산을 나눠 주지는 못했다.

하루는 종친 앞에 오물음을 초대해 옛날이야기를 해 달라 부탁했다.

오물음이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지어 말했다.

"㉠ 장안에 갑부 이동지(李同知)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장수하고 부귀한데다 아들까지 여럿 두었기에 사람들이 좋은 팔자라 했습니다. 다만 소싯적 가난하던 시절 마음의 상처를 입어, 살림을 잘 다스려 부자가 되고 나서도 인색함이 심성에 배어 자손이나 형제에게조차 뭐 하나 주는 게 없었지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보니 세상만사가 모두 허망한데, 자기는 재물 재(財) 자 한 글자에만 얽매여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병중에 생각하니 이제 와서 어찌할 수도 없었지요. 이에 아들들을 불러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고생하여 재산을 모아 갑부가 되었다. 지금 막 황천길을 가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무엇 하나 가져갈 방도가 없구나. 전날 재물에 인색했던 일들이 후회막급이다. 붉은 깃발 펄럭이고 상엿소리가 처량하다. 텅 빈 산에 나뭇잎 떨어지고 황량한 들판에 밤비가 흩날릴 때 엽전 한 푼 쓰려 한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내 죽고 염해서 입관할 때 두 손에 악수*를 쓰지 말고, 관 양쪽에다 구멍을 한 개씩 뚫어 좌우 손을 밖으로 내어서 길가 사람들에게 보여 주거라. 그리하여 비록 재물이 산과 같이 많아도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하라.'

그러고는 문득 숨을 거두었지요. 그가 죽고 나서 아들들이 그 가르침을 감히 어기지 못해 그대로 했지요. 소인이 아까 길에서 상여 행렬을 만났는데 그 양손이 관 밖으로 나온 걸 보고 이상해서 물어보니 이동지의 유언 때문이라 하더군요. 아! 사람이 죽기 전에 그 말이 착해진다 했으니 과연 그렇겠지요."

종친 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와 은근히 비슷한 이야기라 조롱하는 뜻이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 말이 이치에 맞는지라 그 자리에서 깨닫고 오물음에게 후한 상을 주었다. 다음날 아침 여러 아들에게 비로소 재산을 나눠 주고 친척들과 옛 친구들에게 보물을 다 흩어 주었다. 그러고 산에 있는 정자로 들어가 거문고와 술로 즐기니 죽을 때까지 재물의 이로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한다.

대개 노인이 말 한마디에 문득 깨닫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오물음은 골계에 뛰어난 인물로, 순우곤이나 우맹의 세상에 태어났어도 어찌 그들만 못했겠는가?

-『청구야담(靑邱野談)』-

* 악수(幄手) : 염을 할 때 시신의 손을 싸는 헝겊.

(나)

내가 여름내 병을 조리하다가 우연히 『어우야담(於于野談)』과 『기문총화(記聞叢話)』를 보았더니, 자못 볼 만한 것이 많았다. 다만 기억력이 약해져서 일부는 대강조차 짐작할 수 없었다. 이에 이 두 책 가운데서 내용이 길고 방대한 이야기와 옛 사실을 고증할 만한 것들을 뽑고, 또 다른 책에서도 널리 아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모아, 고치고 윤색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여항에 떠도는 고담(古談)도 채집하여 글로 옮겨 그 사이에 끼워 넣었다.

- 이원명, 「동야휘집(東野彙輯) 서(序)」 -

(다)

졸옹(拙翁) 노공(盧公)은 유(儒)를 업으로 하여 문장을 넓게 하고 부지런히 힘쓰기를 60년 동안 하여 위로는 경전으로부터 아래로는 국사(國史), 야승(野乘)에 이르기까지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에 한묵(翰墨)의 여가에 세속에 유전(流傳)이 되는 이야기들을 모아 백여 종을 엮어 한 책으로 만들었다. 그 가운데는 ㉡ 놀라운 것[驚], 괴이한 것[怪], 기이한 것[奇], 통쾌한 것[快] 등 종종의 다른 것들이 다 들어 있으니 '동패낙송'이라 이름하였다.

- 홍낙수, 「동패낙송(東稗洛誦) 서(序)」 -

<작성 방법>

- ㉠이 사실이라는 믿음을 청자에게 주기 위해 오물음이 한 말의 첫 어절을 쓰고, (가)와 같은 성격의 작품을 지칭하는 말을 (나)에서 찾아 3어절로 쓸 것.
- [A]의 주제를 서술하고, [A]의 성격을 ㉡에서 찾아 쓸 것.

<수고하셨습니다.>